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11, No. 4, pp.204~220(2007)

스키타이係 服飾에 對한 硏究

金 文 子
水原大學敎 衣類學科 敎授

A study on the Scythian costume

Kim, Moon-Ja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 Suwon University

Abstract

The background of Korean Ethnical Costume was originated from those northern mounted nomadic groups, which was Scythe style Costume Culture.

Through the antique records and paintings of tombs bequests hereby describe the forms of Scythian Cotume

(1) Headgear : There was Conical Cap(or Pointed Cap), Feathered Cap, and Crown.

(2) Clothes : Both Men and Women wore Jacket as upper garment with leftsided collars, narrow sleeves to the length of the hip line. As lower garment, they wore the tight Trousers and Kungo(:窮袴)that was attached with gusset.

(3) Belts and Boots : On the upper garment bound the leather Belts that was hanged a hook that was shaped of animal form at the end. Scythian Buckles was divided into six groups, animal-shaped, animal's head shaped, animal fight-shaped, rectangle-shaped, rectangle openwork-shaped, genre scene shaped Buckle. To the Boots, they wore leather boots.

(4) Ornaments : Ornaments divided into Dress Trimming(:Gold plaques), Earrings, Necklaces(;Torques), Bracelets, Rings.

Scythian Gold Plaques were divided into several types according to the shape, animal style(curved beast shape, profile shape, head reversed over its back shape), round shape, quadrilateral form, star shape, flower shape, crescent shape, bundle shape, human appearance. Earrings consisted of a plain ring and pendant ring was a middle ornament hung from it to a pendants which hung was made of heart shaped leaves of the tree, beads-linked. Scythian Torques were divided into several types according to the shape, Torque with Terminal style, Spiral style, Layers style, Crescent-shaped pectoral style, Crown style. Scythian Bracelet were divided into 4 styles according to the shape, Bracelets with

Corresponding author: Kim, Moon-Ja, Tel.+82-31-220-2244, Fax.+82-31-220-2535
E-mail: mjkim@suwon.ac.kr

ends shaped like beasts style, Spiral style, Layers style, Crown with openwork style. Rings were rhomb-shaped and animal shaped styleRings

(5) Animal motifs used in Scythian ornaments appears that in some cases the work was intended to be purely ornamental, while many times the motifs had symbolic meaning (such as the successful dominance of the aggressor over the victim portrayed in the attack scenes). Magical use of symbols may have been inten-ded to guarantee the power of the aggressor.

Key Words : Conical Hat(변형모), Buckles(과대), Gold Plaques(금판장식품), Bracelet(팔찌), Animal Motif(동물문)

머리말

'스키타이' 라는 명칭은 B.C 7-3C에 걸쳐 흑해를 중심으로 거주하던 遊牧騎馬民族을 지칭하며, '스키타이계' 문화라는 것은 이들 스키타이인들의 문화양식을 根幹으로 하여 북방유라시아 스텝지대를 지나는 '초원의 길'을 통하여 각지로 전파되었던 廣義의 스키타이문화를 말한다.

'스키타이계'문화는 遊牧을 위한 이동생활이나 騎馬活動등 유목기마민족 특유의 환경적 요청에 맞추어 창조되었으므로, 농경민족의 그것과는 현저하게 취향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들 상호간에는 분포범위의 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유사성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복식, 무기, 馬具, 車具등에서 同類의 것이 많고 그들의 신앙속에 강한 샤마니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의 예술품들은 특유의 動物意匠[1]으로 대표되며 주술성과 실용성이 가미되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라시아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고대복식의 원류를 이루고 있는 광의의 스키타이계 복식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2]를 바탕으로 스키타이복식 전반에 걸쳐 재조명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구되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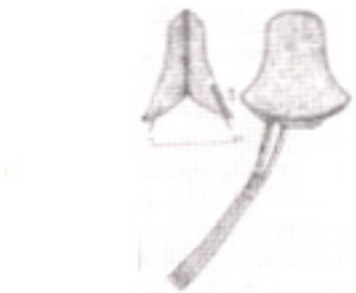
스키타이복식을 크게 관모와 의복, 그리고 허리에 매는 帶에 매달린 대구, 그리고 발에 신는 화와 장신구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표현된 특유의 동물의 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 관모

스키타이계 관모로는 변형모, 조우관 대륜식입식관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림 1>스키타이 인물상
-Treasures from Scytian Tombs

<그림 2> Finno-Scythic figure
B.C. 600-400 C Ananyino
-The Royal Hordes



<그림 3> 변형모
몽골 Noin-ula 6호분 출토
-蒙古ノイン・ウラ發見の遺物

1. Conical Hat(;변형모)

스키타이 연구자들이 스키타이계복식의 가장 특색 있는 것으로 내세우는 것이 이 변형모로써 'Conical Hat'[3] 또는 'Pointed Cap'[4] <그림 1, 2>으로 불리는데 원래는 귀를 덮는 방한을 겸한 것이었으나 점차 장식화 되어 귀를 내놓고 턱아래에서 끈으로 묶는 형태로 변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몽골 Noin-ula 출토 絹製 弁形帽<그림 3>)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5]

또한 고신라, 가야고분 출토 白樺樹皮製 弁形帽는 동일한 형태가 몽고 Noin-ula 출토품에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발전되어 경주 천마총출토 금속제 변형모[6] 형태로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다음의 鳥羽冠의 母部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鳥羽冠

스키타이계 조우관의 착용 遺例를 살펴보면, 스키타이 칼집의 裝飾文에서 半人半獸인 弓手[7]가 머리에 띠를 매고 鳥羽로 보이는 것을 꽂고 있다. B. C. 6C Kelermes 古墳出土 金冠[8]에서도 鳥形飾을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鳥形飾은 B. C. 5-3C Pazyryk barrow 2 出土 女性用 頭飾<그림 4>[9]에서도 볼 수 있는데, 특히 鳥羽飾의 꼬리부분을 圖案化한 樣式을 'Scythe-shaped' tail양식이라 부르며[10], 이는 우리나라의 高句麗 冠裝飾에서도 볼 수 있어 그 源流를 짐작할 수 있다.[11]

따라서 이 같은 스키타이계통의 'Scythe-shaped' tail 양식이 고구려 관장식에서는 새꼬리 부분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고, 고구려 개마총 인물도의 조우관이나 고신라, 가야의 중심꽂이飾 上部의 대표되는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목기마민족들에게서 이같은 조우관의 착용유례는 내몽골에서 발견된 흉노 선우의 관모<그림 5>[12]에 새가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순금제 모자 위에 날개를 벌린 새가 앉아 있는데 조우만을 장식한 것은 아니지만 관모에 새를 장식한 유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우식을 장식한 관모 착용모습은 A. D. 2-3C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남시베리아의 Uibat 강가 Kizil Kaya 의 돌에 새긴 그림 중 Hun족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사인물도[13]에서 관모 양쪽으로 깃털을 꽂고 있는 모습에서 조우관 착용모습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림 4> 女性用 頭飾
B. C. 5-3C Pazyryk barrow 2 出土
-Frozen Tombs of Siberia

<그림 5> 흉노 鳥冠
흉노 아로시등유적 출토 서한
(BC. 202-AD. 8)시기 -황금의 나라 신라

3. 대륜식 입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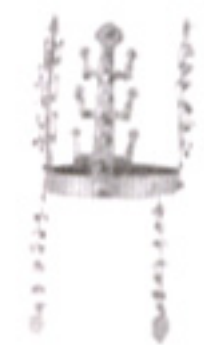
1) 草花形 立飾冠

스키타이계 남러시아 알렉산드로폴 출토품에서 草花의 모습과 瓔珞을 매달고 있는 양식이 우리나라에

서는 慶北高靈부근 출토품으로 전하는 금관의 형태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 樹木形 立飾冠 [;山字겹침식 立飾冠]

古新羅, 加耶고분에서 주로 출토되는 山字겹침 모양의 관모<그림 6>를 樹木形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古式일수록 그 모양이 뚜렷한데 立飾 중 나무기둥에 해당하는 부위가 위로 올라 갈수록 좁아지고 좌우로 뻣은 가지부위도 위쪽으로 갈수록 작아져 실제의 나뭇가지와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樹木形文은 그 源流를 스키타이계 서아시아의 聖樹文<그림 7>[14]에 두고 있다.



<그림 6> 금동관 -호암미술관 소장

<그림 7> 성수문(山字겹침문) Saka 이즈크 고분 출토

현상과 격리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17]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樹木鹿角形 立飾冠<그림 11>의 양식과 매우 흡사함을 볼 수 있다.

한편 瑞鳳冢 出土 金冠의 十字形裝飾 上部에 부착된 鳥形裝飾도 스키타이계 鳥形鹿角裝飾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이 樹木鹿角形 立飾冠은 聖樹와 巫獸사상이 결합된 샤만적 관모로서 때로는 鳥類崇拜思想에서 온 鳥羽冠도 함께 착용하여 古代王들이 가지고 있던 초월적인 권위와 지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다 정제되고 장식적인 형태를 이루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8> 수목녹각형입식관 B.C 1C-A.D 1C Khokhlach Burial Mound, near Novocherkassk

3) 樹木鹿角形 立飾冠

古新羅古墳出土 冠帽에서 흔히 보이는 樹木形과 鹿角形을 장식하는 양식은 그 원류를 스키토 시베리아계통의 유목민족들의 관에 나뭇가지와 사슴뿔을 장식하는 관모<그림 8>형식이 전해진 것으로 해석된다.[15]

한편 이같은 樹木鹿角形立飾冠의 樣式은 샤머니즘과 관련된 것으로 후대에까지 보수성이 강한 시베리아 샤만의 관모에 남아 있다. 즉 'Tay'<그림 9>라 불리는 에네트족 샤만의 관모와 오스티악족 巫冠<그림 10>[16]을 보면 이들 관의 앞과 좌우에 술처럼 늘어뜨린 것은 샤만을 주위 인간세상의 모든 물체와

<그림 9> Tay

<그림 10> 오스티악족 무관

<그림 11> 수목녹각형입식관 -서봉총 출토

<그림 12> 스키타이 인물상
Attic Red-Figured Amphora of 500 BCE.

<그림 13> 窮袴 몽골 Noin-ula 出土 -蒙古ノイン・ウラ發見の遺物

II. 의복

1. 상하의

스키타이인들의 기본복장으로 몸에 꼭끼는 형태로 騎馬등 활동에 편리하며, 상의는 直領校裲式의 엉덩이선까지의 길이이며 하의는 가죽제의 통이 좁은 바지가 기본형으로 점차 직물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당이 부착된 바지[;窮袴]로 변해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하의 착용모습은 스키타이 人物像<그림 12>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Saka族 上衣의 형태를 보여주는 이즈크 고분출토 襦의 遺物[18]에서 보이는 소매부위의 완장같은 襈은 高句麗 舞踊塚 古墳壁畵 長襦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窮袴의 착용 모습은 高句麗古墳壁畵 人物圖의 바지 착용모습에서 뒤가 삐죽나와 있어서 襠附着樣式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지로 襠附着 형태를 보여주는 유품은 스키타이계 속하는 몽골 Noin-ula 出土 바지<그림 13>[19]에서도 볼 수 있어 이같은 窮袴의 형태도 그 源流는 스키타이계 복장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帶, 靴

1) 帶

상의 위에 매게 되어 있는 허리띠는 중국식의 大帶와는 달리 革帶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끝에는 스키타이계 樣式의 가장 대표되는 것 중의 하나인 動物形意匠으로 된 動物形 帶鉤가 붙어있어 갈고리로 걸게 되어 있다.

보통 帶鉤는 혁대의 끝에 달려있어 다른 쪽 端의 구멍 속에 꽂게 되어 있는데 帶鉤에 사용되는 동물형양식은 스키타이계 장식의 가장 대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스키타이계복장의 전래로 함께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같은 帶鉤의 사용은 중국에 있어서도 胡服과 함께 들어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王國維의 『胡服考』에 「古革帶常用鉤」라 하여 혁대에 항상 帶鉤를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20] 또한 史記 齊太公世家에 "...射中小白帶鉤 小白詳死..."라 하여 帶鉤라는 명칭이 보이고 있다.[21]

한편 趙의 武靈王이 그 신하들에게 하사한 胡服중에 「黃金師比」가 있는데 이 '師比'가 帶鉤에 대한 胡語로 알려져 있다.[22]

그런데 이같은 帶鉤의 양식은 『淮南子』 說林訓 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는 鉤는 각각 다르나 그 鉤가 달려 있는 環帶는 동일한 모습이다」[23]

이같은 帶鉤의 다양한 모습은 유라시아 여러 스키

타이계 버클모양 유물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버클의 다양한 모습은 크게 동물형(animal-shaped) <그림 14>, 동물머리형(animal's head shaped) <그림 15>, 동물투쟁형(animal fight-shaped) <그림 16>, 장방형(rectangle-shaped) <그림 17>, 투조장방형(rectangle openwork-shaped) <그림 18>, 풍경형(genre scene shaped) <그림 19>으로 나눌 수 있다.

2) 靴

발에 신는 것으로는 가죽제의 신 목이 있는 靴를 그 시원형으로 하는데 화의 착용방법은 바지를 화 속으로 넣고 묶는 것<그림 1>과 밖으로 내놓는 방법이 있다.

『中華古今注』에는 "靴라는 것은 옛 西胡制로써 趙의 武靈王이 常服으로 삼았다." 라고 있어 靴의 원류가 西胡制라고 했는데 西胡라는 것은 서쪽의 스키

<그림 14> Belt Buckle in the Shape of Galloping Horse mid -1st millennium BC Koban Culture. - *The Scythian Gold from the Hermitage*

<그림 15> Gold Buckle 2nd half of the 7th century B.C. Arzhan Barrow II -http://www.hermitagemuseum.org

<그림 16> Bronze Buckle 6th - 5th century BC Olon-Sume Area Mongolia -*The Scythian Gold from the Hermitage.*

<그림 17> Belt Buckle First half of the 1st millennium BC Koban Culture -*The Scythian Gold from the Hermitage*

<그림 18>Belt Buckle 4th-5th century BC Sakae Culture-*institute for the history of material culture of Russian Academy of Sciences*

<그림 19> Belt Buckle 5th-4th century BC Sakae Culture -"A Culture on the Hoof: Kurgan Woman of the Pazyryk"

타이계통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스키타이 人物圖에 보이는 靴는 半長靴정도 길이의 무두질한 가죽으로 보이는데 바지를 靴 속으로 집어넣어 활동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Pazyryk Barrow 2출토 화<그림 20>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바지가 皮革製에서 布製로 변화되고 바지 자체가 발목부위를 졸라매는 형태로 되면서 靴위에 바지를 입는 형태도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림 20> boots
Pazyryk Culture. 5th century BC
Pazyryk Barrow No. 2

III. 장신구

스키타이계 장신구로는 금판장식품,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을 들 수 있다.

1. 금판장식품

스키타이들은 Gold Plaque를 옷에 매달아 장식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는데 Kul Oba 고분출토 壺에 그려진 스키타이인들은 모두 Gold Plaque를 매달은 바지를 착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지 戰士들만이 달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다.[24] 한편 Pazylyk 고분출토 상의의 뒷조각에도 가죽을 잘라 사슴모양으로 붙이고 있는데 그 위에도 또한 금판[; gold disk]을 붙이고 있었으며.[25] Issyk 고분 출토 상의에도 화살촉 형태의 금장식을 부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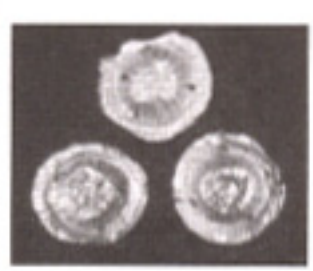
스키타이 고분출토품들에서 다수의 Gold Plaque에서도 그 양식을 발견 할 수 있는데[27] 이것들은 모두 둘레에 구멍이 뚫려 있어 의복에 부착시키게 되어 있다.

스키타이 기원전 4세기 후반 Dnieper area. Chertomyk barrow 출토 Gold Plaque<그림 21>는 9개의 꽃잎이 달린 장식판으로 모두 4개의 구멍이 꽃잎부위에 뚫려 있어 옷에 꿰매진것이다.[28]

금판장식품은 그 양식에 따라 동물형(animal style:curved beast shape <그림 22>, profile shape, head reversed over its back shape), 원형(round shape) <그림 23>, 사각형(quadrilateral form), 별형(star shape) <그림 24>, 꽃형(flower shape)<그림 21>, 초생달형(crescent shape), 다발형(bundle shape), 인물형(human appearance)<그림 25>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1>flower shape Gold Plaque 4th century BC Chertomlyk Barrow, Dnieper Area, near Nikopol -Hermitage Museum

<그림 22> curved beast shape Sakae Culture VI -V c. B.C -Hermitage Museum



<그림 23> Round shape IV c. B.C -Hermitage Museum

<그림 24> Star shape V c. B.C. -Hermitage Museum

<그림 25> Human appearance shape IV c. B.C. -Hermitage Museum

<그림 27> Earring Sakae Culture. 3rd - 1st century BC -Hermitage Museum

2. 귀걸이

원래 이들 중 단환식이식은 스키타이 기원전 300-280년 Crimea Chersonesus 출토 금제 귀걸이 <그림 26>[29]는 끝에 사자머리 형을 장식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고신라 충북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출토 금 귀걸이는 장식 없이 간단한 세환으로만 되어 있다. 이같이 스키타이계 단환식 귀걸이류는 동물형장식이 매달려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것들은 장식이 없이 간단한 형태로만 출토되고 있으므로 단환식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동물형장식이 사라지고 간단한 형태로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수식부이식은 스키타이 1-3세기 Sakae Culture 귀걸이<그림 27>[30]에서는 이환부와 중간식이 한 번에 계속해서 연결된 것으로 보이며 사이사이에 紅玉髓와 心葉形 수식품들이 붙어 있는 것이 원형으로 보인다.

<그림 26> Pair of Earring Chersonesus. 300-280 BC Vault under a wall No. 1012. environs of the City of Sebastopol Crimea -Hermitage Museum

3. 목걸이

이같은 옥류연결목걸이는 일찍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기원전 4000년 중후기 Maikop 문화에 속하는 옥류연결목걸이<그림 28>[31]는 터키석과 여러 보석으로 丸玉과 자연석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든 목걸이가 있으며, 기원전 3800-2600년경으로 추정되는 시리아· 팔레스티나지역출토품[32]에는 각종 옥을 일렬로 연결시킨 형태가 보이고 있다. 그 후 이같은 목걸이 양식은 북방유목기마민족으로 전해져 스키타이계 장신구의 하나로 우리나라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원전 4세기경의 것으로 Pazyryk barrow 출토 管玉 연결목걸이가 있으며, 그 외에 동고분에서는 목걸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琉璃, 紅玉髓[; sard], 터키석, 비취 등으로 만든 管玉 丸玉, 棗玉, 多面玉 등이 출토되었다.[33] 몽골 노인-우라 고분에서도 호박, 석재, 마노로 된 棗玉, 管玉등이 출토되어[34] 목걸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스키타이계 목걸이류의 또 다른 예는 일명 Torque식으로 불리는 쇄식연결 목걸이류인데 B.C. 600-400 C Finno-Scythic 인물상<그림 2>에 그 착용모습이 보인다.

Ananyino스키타이의 기원전 5세기 Solokha 古墳出土 金製 Torque[35] 는 양끝에 동물 장식을 매단 金鎖式 목걸이류에 속하는 것이며, 또한 기원전 5-3세기 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카멘츠고에 出土 鎖[36] 의 연결 모습은 바로 武寧王陵出土品과

같은 樣式을 보이고 있다.

Torque식은 끝장식 달린 형(Terminal style)<그림 29>, 나선형(Spiral style)<그림 30>, 중첩형(Layers style)<그림 31>, 초승달 흉식형(Crescent-shaped pectoral style)<그림 32>, 관형(Crown style)<그림 33> 등으로 나눌 수 있다.

4. 팔찌

스키타이 기원전 4세기 후반 Dnieper area, Dniepropetrovsk region Chertomyk barrow 출토 금판환식 팔찌는 긴 장방형을 돌려 만든 것으로 外輪이 말려 있고 가운데 橫으로 突帶가 돌아간다. 전형적인 스키타이 팔찌로 남녀 귀족층의 무덤에서 종종 출토된다.[37] 기원전 5-4세기 Sakae 문화, Syrdarya 지역 출토 금판환식 팔찌<그림 34>[38]는 주조된 투조식 금팔찌로 2개의 경첩으로 만들어졌고, 뒷다리를 구부리고 어깨부위를 바닥에 대고 있는 자세의 말 모습을 양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접합부위나 말갈기, 발굽부위 등에는 터키석을 감입하고 있다.

팔찌는 그 양식에 따라 동물 부착형(Ends Shaped like beasts style)<그림 35>, 나선형(Spiral style)<그림 36>, 중첩형(Layers style)<그림 37>,

<그림 28> Beads necklace
Maikop Culture. Mid - late 4th millennium BC
Maikop Barrow (Oshad Barrow), Adygeya Republic (formerly Kuban Region), the City of Maikop, Russia
-Hermitage Museum

<그림 29> Torque with terminal style B. C 4C
Sakae Culture
-Hermitage Museum

<그림 30> Spiral style Torque
Late 4th century BC.
Karagodeuashkh Barrow
-Hermitage Museum

<그림 31> Layers style Torque
B. C 3C. Sakae Culture
-Hermitage Museum

<그림 32> Crown style Torque
B. C 5-4C. Sakae Culture
Karasuk Burial Mound II, Barrow 1
-Hermitage Museum

<그림 33> Crescent-shaped pectoral style Torque
First half of the 4th century B.C.
Bolshaya Bliznitsa kurgan
-Hermitage Museum

투조관형(Crown with openwork style)<그림 34> 등으로 나눌 수 있다.

5. 반지

스키타이계 반지류는 대부분 반지 상부에 동물형이 배치된 장식부형이나 우리나라 것과 같이 능형장식이 배치된 것이 종종 있다. 기원전 4세기 후반 Dnieper area, Dniepropetrovsk region Chertomyk barrow 출토 금반지<그림 38>는 날개를 편 오리가 揷印되어 있는 반지로 여자의 새끼손가락에 낀 반지이다. 오리는 세계의 어느 곳-물속, 땅위, 그리고 하늘-에서도 살 수 있는 짐승으로 소유자의 높은 사회적 신분을 상징한다고 한다.[39]

IV. 스키타이계 동물문

動物意匠은 내륙유라시아 유목기마민족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들의 복장을 생각할 때 그들의 문화를 특징짓는 動物意匠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40]

스키타이人들은 특히 자그마한 藝術品에 뛰어난 장인 정신을 발휘하여 섬세한 뼈 彫刻品,蜜蠟法으로 주조된 靑銅製品들과 打出된 金銀製品들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장식과 공예품의 출현은 기원전 7세기에 시작된 스키타이 사회의 계급분화와 관계되어 있다. 사회 상류층을 형성하는 군사 지도자들은 그들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

<그림 34> Crown with openwork style
Sakae Culture. 5th - 4th century BC.
Duzdak Area, Syrdarya Region
-Hermitage Museum

<그림 35> Ends Shaped like beasts style 330-300s BC. Bliznitsa Barrow
-Hermitage Museum

<그림 36> Spiral style
Late 4th century BC.
Karagodeuashkh Barrow
-Hermitage Museum

<그림 37> Layers style
Sarmatian Culture. 1st century BC.
Barrow No. 2, Burial No. 2, Volgograd Region
-Hermitage Museum

<그림 38> Rhomb-shaped Ring
Second half of the 4th c. B.C.
Dnieper area, Dniepropetrovsk region
Chertomyk barrow -Hermitage Museum

던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물품들은 동물상이나 싸우고 있는 야수상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위 "스키타이 動物양식"으로 불리는 특징적인 생기찬 양식으로 전환되어 있다.

스키타이文様이라 불리는 독특한 金製 또는 青銅製의 動物文이, 西로는 黒海 주변으로부터 東으로는 몽고리아, 綏遠地方까지, 스텝地帯 각지의 유적으로부터 출토되고 있는 것도 초원의 길을 둘러 싼 동서문화의 교류와 遊牧諸民族에 있어서의 동물문의 유행을 잘 나타내고 있다.[41]

많은 제품에 나타나는 동물 문양은 그들 특유의 스키타이 양식으로써, 유목민족이 가지는 동물에 대한 관심과 考察을 기반으로 하여 그들 자신의 추상적 예술감각을 발휘하고 거기에 그리스 미술의 사실성, 오리엔트미술의 환상적 기념물 성을 加味, 신선하고 독특한 양식으로 발전시킨 것이다.[42]

스키타이 동물양식은 野生動物인 굽동물, 猛獣, 猛禽, 그리고 가축류, 幻想動物 등의 소재와 단일장면, 투쟁장면, 반정립장면 등의 구성, 기법, 각 동물이 갖는 기본 속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 연구되고 있다.

굽동물에는 사슴, 양, 염소가, 맹수에는 표범, 호랑이, 사자, 늑대가, 맹금에는 독수리와 매가, 말 등의 가축류, 환상동물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리핀이 흔히 묘사되었다. 그 외에도 굽동물이자 맹수인 멧돼지도 자주 표현되는 소재였다. 그 외에 백조, 뱀, 사냥개, 들토끼, 물고기, 수돼지, 고라니, 곰등도 자주 등장한다.[43]

스키타이 동물양식에서 새는 上界[; 天上界]를 굽동물은 中界[上界와 下界와의 중간단계]를, 맹수와 뱀은 下界[; 天上界에 대한 인간세상]를, 멧돼지는 中界와 下界의 중계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들은 동물전체, 신체의 전반부, 후반부, 혹은 일부가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개체들과 함께 표현되었다.[44]

단독으로 표현되는 짐승들도 잠재적 공격자, 잠재적 피공격자로 간주되지만 스키타이 미술자들은 짐승들의 몸을 일정한 형태의 장신구 틀 안에 넣기 위해 기발한 형태로 짐승의 몸을 뒤틀고 압축함으로써 짐승이 가지는 힘과 탄력을 생생하게 나타내는데 성공하고 있다.[45]

1. 스키타이계 動物文 분류 및 상징성

스키타이계 복식품을 중심으로한 장식품들의 동물문을 나타내는 유물들을 동물별로 분류해보면 <표1>과 같다.

<표1>에 의하면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스키타이계 動物文에 보이지만 시대와 지역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같은 동물양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각 문화권에 따라 장식품에 사용되는 동물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는데 가장 다양한 종류가 사용된 지역은 역시 동물문의 원류가 되는 스키타이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복식품을 중심으로 한 장식품에 사용된 動物文으로 한정되어 고찰되어서 각문화권에 다른 동물의 비교는 같은 종류의 동물이 너무 적어 하나씩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2곳 이상의 문화권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動物文은 사슴, 양, 말, 맹수, 표범, 그리핀, 당나귀, 상상(복합동물; 예를 들어 독수리부리의 사슴 등)동물 등이다.

3곳이상에서 나타나는 動物文은 그리핀과 말 뿐이나 사슴문양은 동물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金冠 즉 樹木鹿角形立飾冠에서 사슴뿔을 형상화한 녹각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46]

스키타이계 動物文들중 굽동물들은 흔히 머리를 앞이나 뒤로 향한 상태에서 두다리를 서로 포개어 접어 넣는 자세<그림 14, 17, 32, 34, 35>를 취한다. 맹수는 서있거나 원형으로 웅크린 자세<그림 22>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며, 맹수와 굽동물 모두 몸을 180도로 뒤트는 표현도 있다.

동물을 과장되게 표현한 외에도 신체를 面과 面으로 이루어진 능선(角)으로 처리하거나, 둥그스름하게 소위 원통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신체의 특정부위, 특히 견갑부에 나선, 혹은 소용돌이 모양의 문양을 삽입한 경우도 많다. 또한 동물들의 정면보다는 측면으로 묘사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역시 스키타이 동물양식의 한 특성이다.

스키타이인 들의 동물 표현들은 대부분 그들의 환경에서 선택되었으며 보통 野生의 동물들을 주로 묘

<표 1> 스키타이계 動物文의 分類

문화권 / 동물	코카서스	스키타이	사키	알타이	타가르	사르마티아	우리나라
사슴	1(plaque)	1(plaque)					
양	1(대구)	2(diadem, 팔찌)					
말	1(대구)		2(단추, 팔찌)				25(대구)
맹금		1(대금구)					
맹수		1(plaque)	1(torque)				
사자		3(plaque, torque 2)					
표범		1(plaque)	1(대구)				
호랑이							7(대구)
곰		1(반지)					
멧돼지		1(반지)					
그리핀		1(diadem)		1(두식)			2(관장식)
뱀		1(팔찌)					
새		1(귀걸이)					
오리		1(반지)					
수닭				1(혁대)			
당나귀				1(문신)	1		
산양				1(문신)			
소					1		
늑대						1(torque)	
낙타						1(대구)	
상상(복합)동물				4(문신)		1(팔찌)	

사하게 되나 가끔은 길들이게 되었던 가축들도 표현되었다. 스키타이인 들은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동물들의 모든 躍動하는 자세들을 單獨文속에 결합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들은 하나의 이미지 속에 단독의 동물들이 그들의 삶에서는 가정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자세를 單獨文 속에 담아내는데 성공하였다. 동물적인 주제는 단순히 장식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사냥을 위한 주술적인 힘을 얻기 위한 부적으로서,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효과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47]

스키타이계 動物文은 동물을 사실적으로 再現하지 않고 상상을 초월한 이미지화 경향이 강했는데 이는 장식성을 초월한 강렬한 신비감을 느끼게 해준다.

피를 흘리고 있는 동물과의 교감은 인간 존재의 根源이다. 유목민의 생활은 飼育하는 동물과 함께 군을 이루고 습격하는 野獸들과의 투쟁과 끝없이 이어지는 이동생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들의 적인 猛獸들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神聖感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으며 그 투쟁적인 강력한 힘은 存在感을 고취시켰다. 유라시아 유목민들간에는 일관되게 동물을 신성시하는 샤머니즘이 존재했다는 것이 확실하다.[48] 또한 動物文은 동물조상이나 정신이 그들을 來世로 인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한 종교적인 표현이었다.[49]

2. 動物鬪爭文 분류 및 상징성

動物鬪爭文<그림 16, 18, 30. 37>은 이미 서아시아 지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초원의 길을 통하여 스키타이계 전 지역에 전파된 것으로[50] 보이며 스키타이계 문화권[51]에서는 기본 양식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각문화권의 動物鬪爭文의 樣式 특징은 전체적으로 '스키타이 동물투쟁 ' 양식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문화권에 따라 지역적인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먼저 스키타이문화에서는 오리엔트인과 그리스인들은 장식 끝 부분을 항상 짐승의 머리 형태로 조각했었던 것에 비해 스키타이인들은 전체적인 형상을 선호하여 動物鬪爭文을 표현하였다. 장식품에 표현된 동물투쟁문에는 주로 라이온-그리핀, 사자, 그리핀, 독수리등이 염소, 사슴, 새끼양, 멧돼지 등을 공격하는 양식이다.

사키문화에는 전형적인 상상의 怪獸像이 있다. 즉, 실존하는 동물, 짐승과 새가 동물세계의 다른 대표적인 동물들의 부분들과 결합되어 있다. 장식품에 표현된 동물투쟁문은 상상맹수, 뱀, 늑대가 말, 늑대, 산양 등을 공격하는 양식인데 특히 맹수와 뱀의 싸움은 매우 독창적인 것으로 지역적인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알타이문화에서는 동물투쟁문 양식의 대표적인 예로서 장식적인 양식화와 자연주의적 경향이 대담하게 혼합되어 있다. 동물투쟁문에는 호랑이, 독수리 머리 그리핀, 그리핀이 산양, 큰뿔사슴, 멧닭등을 공격하는 양식이다. 알타이 초기 유목민들은 투쟁의 테마를 추위와 어둠에 대항하는 열과 빛의 투쟁으로서 이해하였으며 봄이 도래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노인-우라문화 동물투쟁문의 모티브나 구도는 알타이 및 남시베리아의 유목민족과 공통되는데, 라이온-그리핀이 大角鹿을 공격하거나 야크와 뿔달린 사자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도안들이 있는 작품들은 흉노인들에 의해 제작되었거나 아니면 초원의 길에서 유목민들과 교류하면서 가지고 온 것 같다.[52]

남시베리아 문화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동물투쟁문 모티브로써 그 기본적인 意匠은 호랑이가 야생염소를 공격하는 장면등 猛獸가 그 犧牲物의 배후에서 습격하고 있는 의장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유물이 나오고 있다.[53] 또한 말과 말이 대적하고 있거나 맹수와 맹수가 서로 대적하고 있는등의 독특한 도안도 보이고 있다.

사르마티아 문화에는 "둥글게 말린 野獸"라는 스키타이 모티브의 부활을 볼 수 있다. '사르마티아 동물양식' 유물과 표드르1세 시베리아 수집품과의 주요한 유사성이 존재하고 있다. 양자 모두 동물신체의 표현에 있어 有色 嵌玉을 사용하고 격투중인 동물상의 소재가 특징적이다. 수사슴, 말의 몸통과 머리, 염소의 뿔을 가진 상상적 동물을 공격하는 고양이과 맹수 도안이 있으며, 황소를 공격하는 날개달린 그리핀상이 있고 반대로 그리핀을 공격하는 환상동물 도안도 있다.

이중 특히 날개달린 사자와 말의 투쟁이나 라이온-그리핀이 大角鹿을 공격하고 있는 도안은 태양의 세계와 지하의 세계, 광명과 암흑의 대립이라고 하는 이란의 사상이 반영되었다는 설도 있다.[54]

이상의 각 문화권에서 보이는 동물투쟁문의 동물의 종류 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2>과 같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스키타이계 장식품들에 보이는 동물투쟁문에서는 주로 공격자와 피공격자로 나누지만 때로는 같은 종류가 대적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다른 문양에서 공격자가 피공격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동물투쟁 모티브는 날개달린 사자, 독수리 머리의 사자 등 복합신 짐승의 아이디어와 함께 그 기원이 메소포타미아에 있고, 2개 이상의 개체들과 이루어진 구성장면에는 굽동물과 맹수, 굽동물과 환상동물이 싸우는 투쟁장면이 많다. 이 경우 동물의 눈은 원 또는 동심원으로, 귀는 하트형으로, 코는 두 개의 원으로 일정하게 정형화 되어 있고 실물보다 크게 과장되었다. 뿔과 굽도 실물에 비해 훨씬 더 크게 표현되었고, 일정한 정형성을 갖고 있다. 동물의 신체에 다른 동물을 삽입하거나, 혹은 특정 신체부위를 다른 동물의 형상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55]

싸우는 짐승들의 잔인한 힘, 절박한 고통감을 실감 넘치게 표현함으로써 도안이 내포하는 주술적 힘

<표 2> 스키타이계 동물투쟁문의 동물 종류

문화권	용도	동물투쟁 문양	비고
스키타이	plaque	라이온-그리핀→염소	
	plaque	라이온-그리핀→염소	
	plaque	사자→사슴	
	plaque	독수리→새끼양	
	plaque	사자→숫사슴	
	팔찌	그리핀→수사슴	
	torque	사자→멧돼지	
사키	대금구	상상맹수→말	
	대금구	뱀→늑대	
	대단금구	늑대→산양	
알타이	안장덮개	호랑이→ 산양	
	안장깔개	독수리머리 그리핀→산양	
	안장덮개	호랑이→큰뿔 사슴	
	플라곤	그리핀→멧닭(;雷鳥)	
노인-우라	펠트 깔개	라이온-그리핀→사슴	
	펠트 깔개	뿔달린 사자→야크	
남시베리아	plaque	호랑이→야생염소	
	거울	맹수↔맹수	같은 종류가 대적
	plaque	말↔말	같은 종류가 대적
사르마티아	팔찌	고양이과 맹수→수사슴	
	belt plaque	고양이과 맹수→상상동물	
	장식단추	그리핀→황소	
	목걸이	환상동물→그리핀	그리핀이 피공격자로 변함

을 강하게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의 투쟁장면을 모티브로 하여 동물의 몸을 좁은 공간에 압축시키고 그 표현을 도식화함으로써 동물의 힘을 과장, 강조하고 그 동물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스키타이족의 동물양식이었던 것이다.[56]

동물투쟁문에서 보이는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공격자인 동물과의 교감은 인간존재의 根源에 있다. 유목민의 생활은 사육하는 동물과 함께하며 무리를 이끌고, 수호하며 절대적으로 습격하고자 하는 野獸와의 투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한없이 이동해가며 위험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들의 적인 猛獸는 위험 그 자체이면서 역으로 신성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의 투쟁적인 강력한 자세는 존재감과 고귀함의 化身으로 표현된다.[57]

동물 투쟁양식은 맹수들을 모티브로 하여 주로 장신구에 이용되었는데 보통 두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싸우거나 엉켜있는 형을 하고 있다. 유라시아 기마민족들은 신기하게도 모두 동물 형상을 황금 장식에 즐겨 사용하였는데 , 말과 산양, 사자 그리고 상상의 동물들이 주요 모티브였다. 기마 민족들에게 아름다움이란 다름 아닌 금장식 동물 형상이 상징하고 있는 생명력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물투쟁문은 스키타이의 예술품에서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며, 스키타이족이 사라진 뒤에도 유라시아 대부분의 유목기마민족들의 장식품에 남아 있다.

보통 스키타이 동물투쟁문은 사자, 독수리 같은 육식수나 그리핀이라고 불리는 상상동물들이 양, 말, 멧돼지 같은 초식수를 공격하는 문양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동물 투쟁 모티브는 날개 달린 사자, 독수리 머리의 사자 등 복합신 짐승의 아이디어와 함께 그 기원이 메소포타미아에 있고 그것은 강력한 야수들을 누를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얻고자 하는 지배자들의 소망의 표현이고 권력의 과시였다고 할 수 있다.[58]

V. 결 론

이상으로 고대 우리나라 복식에 영향을 미친 스키타이계 복식을 크게 관모와 의복, 그리고 허리에 매는 帶에 매달린 대구, 그리고 발에 신는 화와 장신구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표현된 특유의 동물의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관모는 Conical Hat(弁形帽) · 조우관 · 대륜식입식관 등이 있다. Conical Hat(弁形帽)은 귀를 덮는 방한을 겸한 것이었으나 점차 장식화 되어 귀를 내놓고 턱아래에서 끈으로 묶는 형태로 변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우관은 북방유목민족들의 조류숭배사상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대륜식입식관은 초화형입식관 · 수목형입식관 · 수목녹각형입식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수목형입식은 그 원류를 서아시아 성수문에 두고 있으며 수목녹각형입식은 聖樹와 巫獸思想이 결합된 샤만적 관모로도 보고 있다.

둘째, 의복에 있어서는 상의는 直領袷衽式의 左衽筒袖이며, 臀部線 정도까지의 길이이다. 하의인 袴는피혁제의 細袴가 始原形으로 그 재료의 변천에 따라 襠 부착의 窮袴도 착용하게 된다. 이것은 騎馬에 편리한 북방유목기마민족의 기본복장으로 上衣 위에는 腰帶를 매고 있다. 요대는 보통 피혁으로 된 環帶의 끝에 스키타이계 동물의장을 보여주는 버클를 달아 앞에서 매게 되어 있다. 발에는 피혁제의 신목이 있는 靴를 신고 있다.

셋째, 장신구류에 있어서는 의복장식품 · 귀걸이 · 목걸이 · 팔찌 · 반지류로 나눌 수 있다. 의복장식품은 의복에 金片裝飾品[;Gold Plaque]을 꿰매 붙이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금판장식품은 그 양식에 따라 동물형(animal style:curved beast shape, profile shape, head reversed over its back shape), 원형(round shape), 사각형(quadrilateral form), 별형(star shape), 꽃형(flower shape), 초생달형(crescent shape), 다발형(bundle shape), 인물형(human appearance)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귀걸이는 세환으로만 연결된 단환식이식과 밑에 수식이 달린 수식부이식으로 나눌 수 있다. 목걸이는 玉類연결목걸이와 鎖式목걸이 [;torque式]가 있는데, Torque식은 끝장식 달린 형(Terminal style), 나선형(Spiral style), 중첩형(Layers style), 초승달 흉식형(Crescent-shaped pectoral style), 관형(Crown style)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팔찌는 그 양식에 따라 동물 부착형(Ends Shaped like beasts style), 나선형(Spiral style), 중첩형(Layers style), 투조관형(Crown with openwork style)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반지는 장식부형이나 菱形 등이 있다.

넷째 스키타이계 動物文을 보여주는 스키타이 문화지역은 고대 초원의 길을 통해 북방유라시아 전지역으로 확산되어 있었다. 즉 코반 문화, 스키타이 문화, 사키 문화, 알타이 문화, 타가르문화, 사르마티아 문화, 우리나라 등을 들 수 있다.

스키타이계 動物文에 나타난 동물의 종류는 많은데 시대와 지역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다양한 동물 종류가 사용된 지역은 역시 動物文의 원류가 되는 스키타이 지역임을 알 수 있다. 2곳 이상의 문화권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動物文은 사슴, 양, 말, 맹수, 표범, 그리핀, 당나귀, 상상(;복합동물)동물 등이다. 3곳 이상에서 나타나는 動物文은 그리핀과 말 뿐이나 사슴문양은 동물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관 즉 수목녹각형입식관에서 사슴뿔을 형상화한 녹각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스키타이계 動物文은 동물들의 약동하는 다양한 자세를 單獨文 속에 담아냈는데, 동물을 사실적으로 再現하지 않고 이미지화 경향이 강했으며 이는 장식성을 초월한 강렬한 신비감을 느끼게 해준다. 즉, 동물을 신성시하는 샤머니즘이 존재했으며, 주술적인 힘을 얻기 위한 부적으로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스키타이 動物鬪爭文은 이미 서아시아 지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고대 초원의 길을 통해 북방유라시아 전지역에 퍼져 있는데, 각문화권의 동물투쟁문의 양식 특징은 전체적으로 '스키타이 동물투쟁 ' 양식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문화권에 따라 지역적인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동물투쟁문은 신성한 힘의 투쟁을 의미하였으며 고대 이란인들은 이를 이 모티브가 계절의 交替에 대한 심볼로 간주하였다. 또한 강력한 野獸를 누를 수 있는 절대적 힘을 얻고자 하는 지배자들의 소망의 표현이고 권력

의 과시였다고 생각된다.

스키타이계 복식은 우리 고대복식의 원류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유물들이나 연구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H. Rubissow(1954), *Art of Asia*, New York: Philosophical Liabrary Inc., p.113.

2) 김문자(1999), "三國時代 心葉形 귀걸이 樣式에 대한 硏究, 복식 제45호
김문자(1999), "三國時代 多條式 垂飾에 대한 硏究," 대한가정학회지 37(10).
김문자(1999), " 스키타이 服飾과 古代 韓國服飾과의 關係 硏究". 中央아시아 硏究 제4호.
김문자(2000), " 스키타이계 裝飾品에 나타난 動物文에 대한 연구"- 單獨動物文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8).
김문자(2000), "스키타이계 裝飾品에 나타난 動物鬪爭文에 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4(3) 김문자(2001), "聖樹文에 대한 硏究-앗시리아式 樹木中心文樣을 中心으로", 패션비즈니스 5(3).
김문자(2001), "삼국시대 머리장신구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5).
김문자(2001), "金屬製 鳥羽飾에 對한 硏究 -古新羅, 加耶古墳 出土品을 中心으로", 패션비즈니스 5(4)
김문자(2002), "百濟 冠飾에 대한 연구", 韓服文化 5(2).
김문자(2002), "A study on the Scythian Gold Plaque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6(3).
김문자(2003), "A study on the Scythian Torqu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Culture (6/2),
김문자(2004), "고대한복의 원류 및 세계화속의 한복의 위치", 한복문화 7(1).
김문자(2004) , "A study on the Scythian Bracelet", Journal of Fashion Business 8(4).
김문자 외 (2005), "한민족역사문화도감" [의생활], 국립민속박물관.
김문자(2005), "고대조우관의 원류에 대한 연구", 한복문화 8(1)
김문자(2006) , "A study on the Scythian Buckle".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0(6)
김문자 외 6인(2006),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국사편찬위원회.
이은주, 김문자(1998) "三國時代 腰佩의 形式 및 그 象徵性에 대한 硏究 -大形腰佩의 形式分類를 中心으로", 패션비즈니스 2(2).
이은주, 김문자(1998), "三國時代 銙帶의 樣式에 대한 硏究, -銙의 型式分類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6).

3) E. D. Phillips(1965), *The Roral Hordes*, London:Thames & Hudson, p. 50.

4) François Boucher(1967),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trans. John Ross, London:Thames & Hudson, p.72.

5) 梅原末治(1960), "蒙古ノイン.ウラ發見の遺物", 東京:榎一雄, p.51. 圖版 50.

6) 문화재관리국 편(1970), "天馬冢", , p.92. 圖版 7, 44-2, 3 圖面 16.

7) M. I. Artamonov(1966), *Treasures from Scytian Tombs*, trans. Kupriyanova, London: Thames & Hudson, p.22, plate 3.

8) Ibid., p.28, plate 27.

9) S. I. Rudenko(1970), *Frozen Tombs of Siberia*, trans M. W. Thompson, London: J. M. Dent & Sons Ltd, pp.96-97, Plate 65.

10) Ibid., p.248.

11) 金文子(1994), "한국복식문화의 원류", 민족문화사, pp.74-75.

12) 이한상(2004),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p.53.

13) E. D. Phillips(1965), *The Roral Hordes*, London: Thames & Hudson, p.122.

14) 太田晴子(1964),"中國戰國時代にわける樹木中心文樣の西方からの傳來について" 「美術史硏究」第3冊, 早稻田大學美術史學會, p. 57.

15) 秦弘燮(1976), "三國時代의 美術文化", 同化出版公社, p.16.
16) 金烈圭(1981), "東北亞脈絡속의 韓國神話", 「古代韓國文化의 隣接文化와의 關係」, 城南: 韓國精神文化硏究院, p.302.
17) YE.D.Prokofyeva(1972), "*The Costume of an Enets Shaman*", Studies in Siberian shamanism ed. Henry.N.Michall,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140.
18) 加藤九祚(1979), "中央アジアの遺跡の旅",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pp.56-58.
19) 梅原末治(1960), op. cit. pp. 55-57.
20) 原田淑人(1967), "漢六朝の服飾", 東京:東洋文庫, p.134.
21) 周迅,高春明(1988), "中國歷代婦女妝飾", 三聯書店.上海學林出版社, p.259.
22) 林巳奈夫(1976), "漢代の文物", 京都: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 p.27.
23) ... "滿堂之座 視鉤各異於環帶一也"...
24) M.I.Artamonov(1966),op.cit., pp.65-66.
25) S. I. Rudenko(1970),op.cit. p. 85.
26) 加藤九祚(1979), op.cit., pp. 56-57.
27) 김문자(2002), "A study on the Scythian Gold Plaque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6(3), pp. 1-14.
28) 국립중앙박물관 편(1991), "스키타이황금", 조선일보사, p. 132.
29) http://www.hermitagemuseum.org
30) Ibid.
31) http://www.hermitagemuseum.org
32) 『世界考古學大系』, 10권 西アジア,(東京: 平凡社.1962), p. 40.
33) S. I. Rudenko, op.cit., p. 110.
34) 梅原末治(1960), op.cit., pp. 41-42.
35) M.I.Artamonov(1966),op.cit.,, pp. 46-47.
36) 『世界考古學大系』,第9卷, 北方ユーラシア中央アジア, (東京: 平凡社.1962), p.59.
37) 국립중앙박물관 편(1991), op.cit.,, p.131.
38) http://www.hermitagemuseum.org
39) 국립중앙박물관 편(1991), op.cit., p. 131.
40) 杉本正年(1995), "동양복장사논고" 고대편, 문광희(역), 경춘사, p.469.
41) 長澤和俊 (1993), "東西文化의 交流", 閔丙勳(譯), 民族文化社,, p. 25.
42) 김원용(1991), "스키타이족과 미술", 『스키타이황금』,조선일보사, p.295.
43) http://pages.sssnet.com/7genex7/basic.html
44) 정석배(1999),"사카와 스키타이 동물양식", 중앙아시아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 . p.7.
45) 김원용(1991), op. cit. p. 295.
46) 金文子(1994), op.cit.,p.95.
47) T. T. Rice(1957). *The Scythians*, London: Thames & Hudson, p. 147.
48) 岡本太郎(1982), "騎馬民族の呪力", 「新潮古代美術館」, 東京:新潮社, p.124.
49) E. D. Phillips(1965), op.cit.,p.63.
50) 조규화(1982), ",복식미학", ,수학사, p.185.
51) 岡崎敬(1973), "東西交涉の考古學", 東京: 平凡社, p.46.
52) 杉本正年(1995), op. cit. pp. 458-459.
53) 加藤九祚(1970)," スキタイの藝術", 東京: 新時代社, pp. 84-85.
54) 조규화(1982), op. cit. p. 185.
55) 정석배(1999), op.cit.,p.7.
56) 김원용(1991), op. cit. p. 295.
57) 岡本太郎(1982),op.cit.,, p.124.
58) 김원용(1991),op.cit., p.295

(2007년 5월 15일 접수, 2007년 8월 6일 채택)